

나주 배 시설 건립 따로따로... 유기적 협조 안돼

테마파크, 2007년 시장 출신지에 결정

박물관과 15km나 떨어져 기형적 운영

전국에서 유일하게 '배 산업특구'로 지정받은 나주시의 배 관련 시설들이 곳곳에 분산돼 들어서고,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핵심시설로 분류되는 나주 배 박물관과 뒤늦게 들어선 나주 배 테마파크가 15km나 떨어져 있는 등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14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0년 말 명품 나주 배 명성유지, 생산능가의 교육과 연구, 생산자와 대도시 소비자 간 교류증진 등을 목적으로 74억8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나주시 왕곡면에 나주배 테마파크를 조성했다. 시는 지난 2007년도에 이 사업 주

진을 결정하면서 장소 선정 문제로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결국 당시 시장의 출신지인 지금의 위치로 결정했다. 왕곡면의 경우 지난해 말 배 농사 면적이 299ha에 불과, 이미 배 박물관이 자리하고 있던 금천면(673ha)의 2분의 1도 안 되는 데다 나주 배의 역사성에 비해 보더라도 테마파크가 배 박물관과 함께 자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으나 묵살한 것이다.

그러나 나주시와 배 원협은 배꽃 개화시기에 맞춰 풍년농사를 기원하는 배 신향제는 테마파크가 아닌 배

박물관에서 개최하는 등 상당수 프로그램은 박물관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나주 배 박물관은 올해 운영예산은 8800만원에 불과하며 2명의 직원이 근무하면서 관리하고 있는 반면 배 테마파크는 팀장을 포함 5명으로 구성된 시청 직원들이 한 팀을 이뤄 현장근무를 하고 있는 등 인력 배치나 업무 조정 등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서 배 박물관은 노후하고 불만한 전시물이 없다는 지적을, 배 테마파크는 홍보 부

족과 프로그램 미비 등으로 인해 방문객이 줄어드는 등 두 시설 모두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배 박물관이 테마파크 쪽으로 합쳐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 것을 잘 알고 대책도 마련하고 있으나 금천면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인해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나주시는 지난 2010년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나주 배 산업특구'로 지정받았으며, 지난해 2391ha의 농사 면적에서 배 5만2000여t을 생산했다. /나주=정철희기자 chjung@



담양 대나무분재학교 다음달 문연다

26일까지 수강생 모집

담양군이 지역 향토자산인 대나무를 주민소득 증대와 연계시키기 위해 대나무 분재학교를 운영하고 수강생을 모집한다.

담양군 대나무자연연구소(소장 김경수)는 14일 "다음달부터 대나무분재학교를 운영할 예정으로 이달 26일까지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나무분재학교는 담양군이 천혜의 자산인 대나무를 활용해 분재와 조경수 등을 개발하고 실질적인 주민들의 소득증대 사업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

터 운영하기 시작해 올해로 3회째를 맞고 있다. 참가하는 수강생들의 경제력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료비를 포함한 수업료는 군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11년과 2012년에 전 과정이 끝난 후 분재학교 수강생들의 대나무 분재작품을 전시해(사진) 관람객들의 큰 관심과 호응을 얻기도 했다.

수업 과정은 죽순이 나기 시작하는 5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진행되며 전문 강사를 초청, 분재와 조경 관련 이론 교육과 함께 현장 실습을 병행해 추진한다. /담양=정재근기자 jgg@

시멘트공장·광산 주민 건강조사

장성, 황룡·외룡리 주민 3600명 확대

장성군은 14일 "시멘트 공장과 광산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건강영향조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11월부터 3개월간(주)고려시멘트 공장에서 발생한 비산먼지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 133명을 대상으로 건강조사를 했던 장성군은 황룡면, 외룡리에 거주하는 주민 3600명으로 확대 조사한다. 이번 조사는 1차 조사를 한 조산대병원이 맡게 되며 시멘트공장과 광산 주변지역의 대기질을 측정하고 환경오염 실태를 분석할 예정이다.

또 시멘트 공장과 광산의 영향권 내에 거주하거나 과거에 장기간 거주한 주민들의 호흡기계 건강검진도 이

번 조사에 포함됐다. 이밖에 지역주민들의 오염노출과 건강영향을 평가하고 공장 주변에 위치한 월경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평가하게 된다.

예초 건강조사는 내년에 실시할 예정이지만, 장성군이 환경부에 체계적인 조사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1년 앞당겨 16일 착수보고회를 연 뒤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지난 2011년 1차 조사 결과에서는 일부 주민에게 규폐증,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이상 소견자가 나와 공장과 광산 주변으로 건강조사가 확대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백호박물관 개관

조선 중기의 시인이자 문신인 백호(白湖) 임제(林悌, 1549~1587) 선생의 삶과 문학세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백호박물관이 지난 13일 임제 선생의 고향인 나주시 다시면 회진리에서 임제정 전 국회의관, 임성훈 나주시장 및 기관장, 임씨문중 관계자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을 열었다. 착공 3년여만인 백호박물관은 사업비 33억원을 들여 3875㎡의 터에 지상 3층, 건물면적 387㎡ 규모로 수장고와 집필실, 문학사랑방과 전시실 등을 갖췄다. /나주=손영희기자 ycsn@

백호박물관 개관

저소득층 자녀 지원 확대

담양군이 관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101세대 중·고등학교생 자녀의 교육 구입비 2800만원을

지급하는 등 그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군은 지난해 75세대에 1270만원을 지원했으나 올해 두 배 이상 지원, 춘추방식이 아니라 하복까지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담양=정재근기자 jgg@

세계한인기업인 400명 전북 온다

부안서 16~19일 대표자대회·수출상담회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세계 각국에서 활약하는 한인기업인 400여명이 대거 전북을 방문하기로 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부안 대명리조트에서 세계한인무역협회 주관으로 '제15차 세계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가 열린다.

세계한인무역협회, 전북도 등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

이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한민족 경제네트워크 구축과 모국 경제발전'.

이 대회에는 세계한인무역협회 36개국 66개 지회 회원 370여명과 해외 한인 경제인, 도내 150여개 중소기업 대표 등 약 550여명이 참가한다.

도는 도내 상공인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이들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를 개척하는 의미 있는 자리 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개막일인 16일에는 세계한인무역협회 11개 통상위원회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통상위원회 임원워크숍과 특별위원회 임원회의, 기조연설,

전북

조경수 생산 부농 일군다

남원 대강면 250여농가 연 100억 소득 올려

조경수 생산으로 전국적 인지도를 보유한 남원시 대강면 약 250여 재배 농가가 100억원이 넘는 연소득을 올리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남원시는 14일 "대강면에서는 교목류 50여 종과 관목류 50여 종이 재배되고 있으며, 1조원이 넘는 국내 조경수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관련 농가 및 단체의 철저한 품질관리 및 적극적인 판로 개척 등 자구 노력으로 전국 최고의 생산단지로 발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강조경수영농조합 법인은 전라북도산림환경연구소와 양해각서를 체결해 기술 지원 확보와 정보 교환이 가능해졌으며, 올해 토양관리 및 병해충 전문가를 초빙해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강의도 실시할 예정이다.

임박택 대강면장은 "우리지역 조경수는 선진국 상류 지역의 특성상 일교차가 심해 토양과 기후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나고, 50여 년 동안 축적된 재배 노하우를 통해 명품 조경수를 생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원=백성기기자 bs8787@

순창 콩 중심 장류-임실 치즈 중심 클러스터

세계발효마을연계사업 선정 21억 확보

순창군은 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한 세계발효마을연계사업에 선정돼 3년간 총 2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세계발효마을연계협력사업은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순창과 임실이 함께 신청했으며, 순창은 콩을 중심으로 한 장류, 임실은 치즈를 중심으로 한 클러스터 및 체질마을 등을 상호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동서양 발효문화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해 순창과 임실에서 1박2일 머무르며 동서양의 발효문화와 음식, 체험 등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세계발효마을연계사업은 순창과 임실, 전주발효식품센터가 지난 2009년부터 함께 해 온 세계

발효마을 연대회의를 이제는 순창과 임실이 세계발효마을 협회 설립 등 세계 최초로 발효마을이라는 이미지를 선점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높다는 것이 임실군의 설명이다.

앞으로 순창과 임실은 상호 협력 기반으로 미국, 일본, 프랑스, 중국, 스위스 등 세계에 산재해 있는 발효관련단체 및 마을들과도 교류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향후 사업성과에 더욱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순창은 원장, 청국장, 고추장 등을 이용한 고급화되고 차별화된 음식관을 열어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나갈 방침이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단신

내장산 자연훼손 단속 사전 예고제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는 봄철 산불기간 탐방객의 무분별한 공원이용으로 인한 자연자원 훼손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단속 방안으로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한다.

15일부터 28일까지 집중단속 기간에는 통제하는 구간을 출입하거나 지정된 장소 외에서 휴원행위를 하는

탐방객을 대상으로 집중단속 한다. 적발되는 탐방객에 대해서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단속기간 통제구간은 까치봉-능선삼거리~순창고개(2.6Km), 장성세재~상왕봉(4.0Km), 구암사~헬기장(백학봉-능선, 0.9Km) 등 구간이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전주시 동·동·동 마을재생학교 통합 개강식

전주시는 14일 오후 자원봉사센터 회의실에서 도시재생을 위한 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 실시하는 마을단위 '동·동·동 마을재생학교' 운영 10개 마을 주민과 코디네이터, 관계공무원 등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 개강식을 개최했다.

이번 '동·동·동 마을재생학교'는 새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재개발

발 등의 물리적 정비에서, 경제·사회·문화 등 종합적인 가능회복을 위한 도시재생의 방향전환과 같은 맥락인 주민 참여형 도시재생 역량강화사업이다. 전주시는 올해 초 마을단위 전문과 과업인 '마을단위 코디네이터 양성'교육과 '마을리더 양성 아카데미'과정을 개설해 운영한 바 있다. /전주=박성식기자·전북취재본부장

남원, 미꾸리 인공부화 양식장 관리 당부

남원시농업기술센터는 본격적인 미꾸리 인공부화 치어 입식시기를 앞두고 어장관리 유의사항 및 질병 예방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양식 농가들에게 철저한 양식장 관리를 당부했다.

농업기술센터 담당자는 치어 입식 후 적응률을 높이고 폐사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미꾸리가 적응할 수

있는 양식장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농업기술센터는 이달 말부터 치어 분양을 시작할 방침으로, 양식 농가를 대상으로 치어 입식 전 물 관리 현장지도를 조만간 실시할 예정이다. /남원=백성기기자 bs8787@

제6회 아산면민의 날 행사 성료

제6회 아산면민의 날 행사가 지난 11일 아산면민회와 아산면(면장 장명자) 주관으로 대야초교 교정에 설치된 특설무대에서 열렸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강수 군수, 박래환 군의회 의장, 임동규 도의원, 조병익 부의장, 조규철 군의원을 비롯해 각 기관사회단체장 및 총향인사, 면민 등 1200여명이 참석했다. /군산=박성식기자·전북취재본부장



전국 서당문화 한마당

사단법인 한국전통서당문화진흥회와 (사)광정유도가 공동 주최 주관하는 '제12회 전국 서당문화 한마당' 대회가 13일부터 14일까지 남원시 어현동 사랑의광장 야외 무대에서 전국 64개 전통서당 학동과 일반국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남원=백성기기자 bs8787@

사단법인 한국전통서당문화진흥회와 (사)광정유도가 공동 주최 주관하는 '제12회 전국 서당문화 한마당' 대회가 13일부터 14일까지 남원시 어현동 사랑의광장 야외 무대에서 전국 64개 전통서당 학동과 일반국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남원=백성기기자 bs8787@